

## 한국금융학회 춘계 정책심포지엄 개최사 김홍범 (한국금융학회 회장)

저희 한국금융학회는 지난해부터 일련의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금융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일관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전파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학회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모두 다섯 차례의 정책심포지엄을 계획했고, 이를 관류하는 연간 대주제를 “위기의 한국 금융: 문제, 해법과 미래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국 금융의 ‘문제’를 시작으로,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는 은행업·비은행업과 금융투자업·보험업의 주요 ‘해법’을 각 업권별로 탐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춘계 정책심포지엄은 그 해법 시리즈의 마무리로, 금융인프라의 향후 과제와 발전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정부와 금융’을 중심으로 금융의 ‘미래 비전’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한국 금융의 미래는 정부가 금융을 어떤 상대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상당 부분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 학회가 이번처럼 한국 금융에 관한 일관적인 문제의식 아래 연간기획으로 진단과 해법,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한국 금융에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한국 금융은 각종 대형 금융사고를, 각각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금융은 실물경제 지원기능과 사회적 신뢰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국제적 평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7등이던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가 2014년에는 80등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102등에서 8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간신히 한 등수 앞섰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내내 우간다는 우리나라를 이미 쉽게 앞질렀습니다. 30-50클럽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금융에서는 우간다에도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어느덧 ‘으레 그러려니’ 하는 패배감이나, 막연히 ‘나아지겠지’하는 안이함이 퍼져있는 듯합니다. 우리 사회에 금융에 대한 진정한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금융에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 금융부문의 여러 건전성 지표들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금융업계와 정책당국이 기울여온 각고의 노력 덕분입니다. 다만, 단기 시계에 집착하기 쉬운 금융업계와 정책당국이 한국 금융의 밝음과 어두움에 대해 중장기적 맥락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꾸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저희 한국금융학회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저는 믿

고 있습니다.

위대한 경제사상가인 케인즈(J. Keynes)는, 자신의 저서 『확률론(A Treatise on Probability)』 (London: Macmillan & Co., 1921, p.427)에서 수학에 치우친 기존의 고전적 확률론과는 달리, 과학적 논리와 철학적 시각으로 확률을 재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G. Gorton, *Misunderstanding Financial Crises: Why We Don't See Them Com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viii에서 재인용):

“이런 종류의 책을 저술하는 경우에, 저자는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때로는 실제보다 조금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논리를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의적 시각이 비구름처럼 몰려와 저자 논리의 생명력을 너무도 쉽게 짓눌러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본 학회가 “한국 금융의 위기”를 전면에 부각하면서 일련의 정책심포지엄을 마련해온 것도, 바로 케인즈의 이런 시각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이한 생각으로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제학자 민스키(H. Minsky)가 “안정은 위기를 부른다(Stability is destabilizing)”라고까지 경고했겠습니까.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오늘 춘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우리 학회는 금융인프라에 관한 세 편의 논문을 선보입니다. 이 글들은 학회가 위촉한 세 분의 훌륭한 연구자들이 지난 수개월간 독자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로, 우리나라 금융인프라의 3대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금융법제, 그리고 신용 정보 및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발표, 토론과 진행을 위해 학계는 물론 정책계, 업계와 연구기관의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분들에게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사의 공동주최 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성환 원장과 후원 기관인 한국은행의 최운규 경제연구원장께서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또한, 본 학회의 역대 회장과 회원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금융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적극 후원해주신 매일경제신문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수개월간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학회 내부의 여러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자리가 금융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물음과 해법을 모색하며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